

---

# 심포지엄 종합평가

---

## 종합평가

---

이번 ADR관련 정책 심포지엄은 주요 선진국에서 재판외 분쟁조정기구인 ADR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법원이 조정센터를 개설하는 등 그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시점에 그간 국내에서 시행되어 온 ADR 제도의 성과와 향후 공동과제를 정리해봄으로써 ADR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ADR기구간 교류·협력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김상수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우리나라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의 성과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고, 김정탁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서정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장, 장수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함윤식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 홍승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민영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 주요ADR 15개 기관을 비롯해 조정학회와 로스쿨, 각종 분쟁해결연구센터 등 ADR관련 학계, 그리고 법조계 등에서 전문가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YTN과 MBN, 서울신문, 기자협회보 등에서 현장취재를 하는 등 언론으로부터도 관심을 받았다.

ADR제도가 재판에 의한 일도양단식의 결론이 낳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법원의 조정제도와 행정형, 민간형으로 구분되는 국내 ADR기관의 수가 수십 개에 이르는 가운데 위원회가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사회 각계에서 분쟁의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여, ADR제도의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우리나라 ADR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발제자를 비롯하여, ADR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풍부한 조정경험을 갖고 있는 지정토론자와 다양한 영역에서 ADR의 업무를 담당하며 운용상의 문제점을 고민해온 ADR기관 실무자 등이 참석해 현행 ADR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상수 교수는 ADR의 개선방안의 하나로 조정이나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 조정안에 구속력이 발생하는 ‘편면적 중재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정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은 편면적 중재제도는 소비자분쟁과 같은 제한적인 분야에 적합한 것이어서 전체 ADR제도의 발전 차원에서 도입을 거론하기에는 보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ADR기관의 조정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염규석 분쟁조정실장은 조정결과에 대해 민사상 화해계약의 효력만 부여할 경우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조정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며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토론 참석자들은 조정결과에 대한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은 ADR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기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공감 표시했다. 한편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사자가 합의를 해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조정결과에 강제적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은 조정의 성질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그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가 승복한 것은 스스로 지키는 문화를 정착시켜나가는 것이 ADR의 발전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무엇보다도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참석한 다양한 종류의 ADR기관이나 법원조정센터의 관계자들 및 ADR전문 연구자들 사이에 ADR 기관 상호간 또는 ADR과 법원 간의 연계가 절실하다는 점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점이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ADR의 발전을 위해 조정결과의 집행력 확보방안이나 조정의 실효성 제고방안, 그리고 ADR과 법원의 연계방안 등에 대해 통일적인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ADR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분쟁해결을 바라보는 우리국민의 사회문화적 인식이 승자와 패자라는 대결적 구도에서 탈피하여 대화와 타협, 협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ADR기관들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이번 심포지엄의 큰 성과로 보인다.

- 이 책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은 당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